

해방직후 건축계의 활동과 성격에 관한 연구

- '조선건축'지를 중심으로 -

金 蘭 基

(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강사)

1. 서.

1-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건축근대화는 조선후기 봉건적 체제를 점진적으로 해체하고 자생적 발전을 예비하는 과정에서 서구문물의 급격한 이식과 식민기간을 거치면서 타율적인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건축은 근대성과 국제적 조류는 일부 섭취하였으나 전통성과 지역적 고유성을 담보해야하는 기회는 상실하고 말았다. 우리건축의 근대화 작업은 일제하에서도 몇몇 뜻있는 건축가들에 의해서는 시도되었지만 해방과 더불어 이제까지 타율적인 상황에서 자율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가지게 되어 변혁적인 시기를 맞게 되었다. 이로써 해방직후의 건축계의 상황은 우리의 近代建築史上 매우 중요한 轉機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당시의 전반적인 특징인 관련단체들과 그들이 지향한 논의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인 강한 정치성과 조직화, 그리고 지향성을 주요한 관점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방직후 건축단체들 - 조선건축기술단을 중심으로 - 의 활동과 추이, 그리고 그에 결부된 이론적 생산과 그 성격을 추적하는 연

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축의 근대건축이행의 자율적인 시기인 해방직후의 건축계 성격을 파악하여 이후 우리 건축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미군정기의 주택사정 및 건축정책, 그리고 문화예술계의 상황으로 고찰하고, 우리 건축계의 활동을 '조선건축'지의 기록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여기에 나타난 각 기사를 분석하여 당시의 건축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당시에 우리의 건축역사를 어떤 시각을 보는가,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또한 당시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인 주택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각 글속에 내포된 의미를 관련 참고 문헌의 성격을 통해서 추적하고자 한다.

1-3. 연구범위.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시대적으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후부터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시작과 끝의 연장선상을 부가할 것

이다. 자료는 '조선건축(1호-8호)'을 중심으로 그간 연구되어진 성과들을 참고로 하여, 건축계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본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만 당시에 글을 남긴 필자들의 일부는 생존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기로 한다. 더욱이 당시의 필자들이 가명을 사용하였거나 비건축인들이 끼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들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계속하고자 한다.

2. 사회적 배경.

일반적인 시대에 있어서 건축은 정치경제적 상황들을 직접적이고도 촉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나 아주 특별한 시대 - 큰 변혁기 - 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사료된다. 이 같은 것은 러시아 혁명기의 건축적 상황들에서 볼 수 있었다. 해방직후 우리의 건축계는 급격한 사상적 이념적 혼란 속에 빠졌다. 좌우 양대 이데올로기가 혼재하는 가운데 일제가 식민기간 동안 가한 압박에 반발하는 기운이 크게 작용하면서, 또한 해방직후 미군이 진주하여 펼친 점령정책의 영향아래서 점차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한에 미군이 진주하는 상황은 일제하에서와는 다른 사회적 배경을 이루었다.

2-1. 미군정기의 주택사정

해방직후 주택문제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항구적인 대책없이, 월남동포 및 해외동포의 귀국으로 인구증가, 도시인구집중 등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유도했고,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미군정의 이들에 대한 대응책 역시 매우 미흡했다.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난민수용소 성격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창고 등을 이용하거나, 타용도의 건물을 임시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구 도시집중은 해외동포가 120만, 월남동포가 약 48만, 그 외에 광복의 흥분에 들뜬 지방주민이 부와 자유를 찾아 도시로 향했으며, 농지개혁

(3.7제 소작제)으로 몰락한 지주층이 도시로 향한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리하여 1945년 1월 - 1949년 5월 10일까지 5년간 서울에 들어온 인구는 657,099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새 주민들을 위한 주택수요로 서울의 주택난은 가중되었다.

이 기간내 주택문제는 갑자기 밀어닥친 인구를 적산가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통 1가옥에 2-3가구가 공동 점거하고 일본사찰(신사)과 같은 건물에는 수십가구가 공동입주하기도 하였다. 이 기간에 신축주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귀속가옥에 조차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하천변이나 산비탈에 판자집을 짓기 시작했다. 일제기간 동안에 토막(土幕)이었던 것이 이른바 하꼬방 판자집으로 바뀐 것이다.

< 표6 >. 추정 남한인구수¹⁾

연도	기간	일수	자연증가율	자연증가	누계	귀환동포	
						각연도내 귀환자수	총 인구
1945	8.15현재						16,873,277
1946	8.15현재						19,510,783
1947	8.15현재	365	0.0189	368,754	2,066,124	170,390	20,049,927
1948	8.15현재	365	0.0191	384,002	2,196,440	130,316	20,564,245
1949	8.15현재	365	0.0192	163,342	2,211,087	14,647	20,727,587
-50							

< 표7 >. 월남이재동포수

월별	1946	1947	1948	1949
1	13,306	706	2,664	1,313
2	20,437	166	4,005	3,500
3	34,437	8,096	11,855	4,541
4	50,450	28,443	15,848	4,092
5	25,818	40,164	12,391	1,301
6	17,203	24,631	15,473	
7	8,212	13,295	17,295	
8	4,739	11,374	7,450	
9	2,234	13,623	11,718	
10	2,997	9,533	7,764	
11	4,740	7,715	5,958	
12	635	4,487	3,686	
합계	185,208	163,233	116,107	

1. 주한경제협조처 편찬. [남한경제사정]. 1949. 백조사. pp.109- 110.

< 표8 >. 남한유입인구(1945.10. - 1947. 12.)²⁾

유 입 지	귀 환 자 수	남한인구중 귀환자 비율
북 한	859,930	5.4%
만 주	303,391	1.9%
일 본	1,110,972	7.0%
중 국	71,611	0.5%
기 타	33,917	0.2%

출처 : [조선경제연보, 1948년]. p. III-19.
 * 1945년 5월 현재 38선 이남의 인구 1천 3백 8십만으로 추산.

판자집(하꼬방)이란 언제 누가 만든 말인지 알 수 없지만 광복후 1946년부터 1947년에 걸쳐 월남가족들이 임시 거처로 하기 위하여 미 점령군이 진주시에 가지고 들어 온 라왕, 미송 등의 목재조각과 루핑, 깡통 등을 이용하여 바라크집(Barrack집 혹은 Block집)을 짓기 시작하여 자연발생된 낱말로 추정된다.³⁾

조선주택영단은 해방 후에도 당시의 급박한 주택난 때문에 그대로 존속하였고, 1948년 정부수립후 대한주택영단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당시의 혼란한 사회상으로 인해 일제하에서 운영되던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주택형태도 목조주택으로 일관하였다. 6.25전까지는 기존 영단에서 이관된 것을 관리하는 일과 미군정청에서 지은 21,391호의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일인들이 버리고 간 귀속가옥을 분양해 주는 정도였다.

2-2. 미군정의 주거 및 건축정책.4)

1). 귀속가옥의 규모.

귀속가옥은 귀속재산중 기타귀속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건물, 주택, 대지, 임야 등 부동산과 선박, 그리고 금, 은, 주식, 채권 등의 동산, 기타 재산상의 채권이 포함되었다.

1958년 5월말 현재 정부(재무부)의 귀속재산

처분통계⁵⁾를 인용하여 재산의 규모를 추산하면, 공대지(空墾地)가 16만 5천여건 이상, 주택 6만 건이상⁶⁾, 점포 8천건 이상, 임야 3천7백건 이상에 각각 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학교 법인의 재산 800건이상, 상당한 규모이상의 사찰재산, 2차대전중 일본당국에 의하여 적산으로 규정되었던 연합국인 재산, 막대한 규모의 미군용 및 미정부 관계 등으로 징발된 재산 등이 모두 포함되고 있었다.

2). 귀속가옥의 처리정책.

부동산 가운데 대지, 주택, 점포 등의 관리는 당해 소재지내의 금융기관에 의해 그 관리가 위임되고 있었다. 서울의 경우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구는 조흥은행, 영등포구, 마포구는 조선저축은행, 동대문구, 성동구는 조선신탁(주)이 각각 관리자가 되어 재산의 감정, 입주자의 선정, 관리청약의 체결, 사용료의 징수 등의 귀속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서울시내 소재 일본인 가옥의 가격은 평당 1,000-2,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입주자는 25%에 해당하는 임대료(연간)를 군정청에 지불하도록 요구되었다⁷⁾. 그리고 고층건물은 특수한 관리예규를 두고 관리되었다. 고급주택의 경우는 소위 'D·H(Dependent House)'로 이름붙여져 미군정관리들이나 미군장교들의 사택으로 징발, 사용되었다. 재무부가 1958년 발행한 [재정금융회고]를 보면 [D·H]건물로 지정된 재산(고급주택, 호텔)은 총 419건이고, 그 후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그중 27건이 미국관리하로 다시 편입되었다.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정을 보면 미군정청내 재산관리관을 두어 중앙관리처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였고, 지방관재처에서는 도재산관리관을 두어 지방관리를 하였다. 또한 군정기

2. 부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p. 92.
 3. 김정동. 韓國近代建築의 새로운 位相. 1986.7.5. 61年度, 芝浦工業大學建築工學科主催 特別講座시리즈, 1986前期.
 4. 줄고. 일제의 주거유산과 미군정기 주택사정 고찰(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14호. 1987.12.

5. 재무부. [재정금융회고]. 1958. p. 168.
 6. 1942년말 조선국세조사에 의한 한국내 일본인 수는 752,823명, 호구수는 179,349호였다. 일본의 65%가 남한에 거주했으므로 이를 적용한 남한의 일인호수는 11만 6500호가 되어 귀속주택 6만건은 매우 적게 잡힌 것으로 판단된다. 이대근. 앞책.
 7. 이대근. 앞책. 재인용. 森田芳夫. [조선종전의 어록]. p.414.

간동안 11개의 처리실적이 기업 513건, 부동산 839건, 기타재산이 916건, 도합 2,958건에 불과한 것으로, 1948년 말 현재 귀속사업건수가 3,551건, 대지, 주택, 점포 등 각종 부동산이 20여만 건 이상에 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대부분의 귀속재산은 한국정부로 이관되고, 이관된 재산과 이미 처리된 재산에 대한 법인절차로서 이른바 [한미정부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Initial Trime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between R.O.K and U.S.A)]이 1948년 9월 11일 체결되었다.

이로써 미군하에서 처리된 일체의 재산상의 처사는 기정사실로 확정되었다. 1948년 12월 [귀속재산처리법]이 공포되어 6.25후 1954년부터 그 처리업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⁸⁾

3). 귀속가옥의 처리 및 불하.

미군정청에 의한 귀속재산의 처리는 신한공사소유의 귀속농지 정리사업과 소규모사업체 및 주택(도시지역)의 민간불하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미군정청은 귀속농지불하(1945. 10. 군정법령10호)와 더불어 1946년 7월부터 소규모 귀속사업체(제조공업)의 불하와 귀속가옥의 불하를 추진하였다. 대상은 이른바 도시지역에 소재한 일반주택이었다. 이 주택불하사업은 당시 도시지역의 무주택자들에게 자기주택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줄이고, 잉여구매력을 흡수함으로써 인플레이션요인을 배제하는 정책적 의도아래 추진되었다. 원칙적으로 주택불하사업은 ①현금판매방식, ②경쟁입찰방식, ③매각매전의 20%는 일시불, 나머지는 연율 5-7%로 최장 10년이내의 할부상환방식에 의하였고, 또는 ④특정인에게 불하의 집중을 막기 위해 비주거지에 대해서는 불하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되었다.

귀속농지 분배사업은 1948년 6월 9일 현재 목표의 75%를 달성했다고 발표되었으나(미군정청발표) 민간정부 수립후 이관되어 1952년 2월말 현재 91.4%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귀속사업체 불하에 있어서는 군정기간중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대로 한국정부에 이관하고 말았다.

4). 건축정책.

미군정기의 미군당국은 한국에 특별한 건축정책을 실시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1946년 7월 2일 군정청 산하의 주택국을 폐지하고 경기도적산관리처로 이관한 정도 였다. 이어서 11월 16일에 중앙주택관리처를 새로 설치했다. 1947년 10월 1일에는 토목부 도시국에 건축통제과, 운수부에 건설과를 설치하였다. 이것이 미군정기 미군정청이 실시한 건축관련 행정의 전부이다.

미군정에서 정부를 수립한 후에는 1948년 11월 14일에 사회부에 주택국을 두고 건축과를 설치하였으며 1949년 10월 5일에는 사회부 소속의 주택국을 보건부로 이전하였고 1950년 2월 보건부 주택국에서 주택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한달 후 인 1950년 3월 30일 주택국을 폐지하고 건설과를 주택과로 개칭하였다.

미군정청은 특별한 건축정책을 실시하기 보다는 부족한 주택을 확보하거나 일제가 진행하던 주택건설사업을 이어서 진행하는 정도였다.

<1945년 - 1950년 건축관련 주요연표>⁹⁾

- 1945. 8. 17. 조선공업기술연맹 구성, 건축부 등 8개부서.
- 1945. 8. 18. 조선문화재단 중앙협의회 발족, 조선주택영단 접수, 미군정 학무국 사회자의 감독을 받음.
- 1945. 8. 25. 건축협회결성.
- 1945. 9. 1. 조선건축기술단 결성.
- 1945. 9. 23. 건축협회, 건축동맹으로 개칭.
- 1945. 10. 17. 조선주택영단 인수 인계(38이남 소재 약 3000호)
- 1945. 11. 15. 국민주택 설계공모
- 1945. 12. 조선건축사협회 창립.
- 1946. 3. 21. 국민주택설계안 전시, 전남건축문화협회창립.
- 1946. 5. 10. 건축동맹, 북조선건축동맹으로 결성.
- 1946. 7. 2. 미군정청, 주택국폐지(경기도적산관리처로 이관).
- 1946. 11. 조선건축기술단, 자작농기주택설계안 현상용모
- 1946. 11. 16. 미군정, 중앙주택관리처 신설.
- 1946. 12. 14. 조선건축기술단 2회 정기총회.
- 1946. 12. 20. 북조선공업기술총연맹건축위원회로 개편.
- 1947. 3. 20. 조선건축지 창간호발행.
- 1947. 3. 21. 조선건축기술단, 건축행정기구 건축국을 내부부안에 신설 건의.

9. ①이대근. [미군정하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연구1. 1983. 한길사. 부록 미군정하 귀속재산처리 관계일지.

8. 한국의 산업경제10년사. 한국산업은행. 단기4288.

- 1947. 4. 23. 조선건축기술단. [조선건축기술협회]로 개칭.
- 1947. 5. 17. 조선건축기술협회, 주택문제연구회 구성.
- 1947. 7. 16. 미군정 보건후생부, 전채민주택 21391호 건설 (1946-47).
- 1947. 7. 23. 적산주택방매방법 결정(조선주택영단).
- 1947. 10. 1. 미군정, 토목부 도시국에 건축통제과, 운수부에 건설과를 둠.
- 1948. 1. 31. 조선건축기술협회, 정부에 [주택문제 건의서]제출.
- 1948. 7. 5. 조건협, [주택사정에 관한 성명서]발표
- 1948. 7. 8. 조건협, 주택문제에 관한 여론환기 모임(기독교 청년회관).
- 1948. 11. 14. 사회부에 주택국을 두고 건축과 설치.
- 1949. 10. 5. 사회부 소속의 주택국을 보건부로 이전.
- 1949. 12. 30. 보광동 재건축택 완공(136세대)
- 1950. 2. 보건부 주택국, 주택공사설립.
- 1950. 3. 30. 주택국 폐지, 건설과를 주택과로 개칭.

2-3. 문화예술.

1). 문학계.¹⁰⁾

문학계에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방이 되자마자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1945년 8월 16일 조직된 [조선문학건설본부]가 그것이다. 여기에는 임화, 김남천, 이원조, 이태준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9월 17일에 이에 대항하는 [조선 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이 결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이기영, 한설야, 한효, 윤규섭, 이동규, 권환 등이 참가하였다. 이 두 단체는 그해 12월 13일 [조선문학동맹]으로 통합되었다. 1945년 9월 8일에는 [조선문화협회]¹¹⁾가 결성되었는데 이들은 비교적 우익에 가까운 그룹이었다. [조선문학건설본부]가 개칭한 [조선문학가동맹]은 '민족문학의 건설'이라는 노선을 수립하여 1946년 2월 8일 - 9일의 [전국문학자대회]에서 사업내용을 지침으로 제시한다. 이 단체는 다른 문화예술단체를 규합하여 46년 2월 24일에 [조선문화단체총연맹]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우익적인 그룹에서는 [조선문화협회]가 [중앙문화협회]로 재결성하였고 1946년 3월 13일 [전조선문필가협회]¹²⁾를 결성되었고 46년 4월 4일에는 [조선청년문학가협회]가 결성되었다. 이들 두 단체는 '순수'라는 노선을 주장하여 좌익계의 단체들에 대적하였다.

이들 좌우익으로 갈린 단체들은 미소공동위원회(1946년 5월 21일)가 결렬되자 좌우대립을 결렬하게 전개하였다. 좌익에서는 창작을 통한 대중적 실천과 문화씨클운동을 통한 문화적 세포운동의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활동은 미군정의 금압이 강화되면서 조직적 결속이 이완되어가고 있었으며 핵심인물들은 점차 월북하게 되었다. 결국 남한 문단의 공백은 우익에 의해 채워졌다.

단정이 수립되고 좌우대립이 종식되자 남한에서는 우익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정부기관에 투신하거나 문예지를 창간하는 등의 활동에 들어갔다.

문학계의 성격을 요약하자면 일제하인 1920-30년대 문학계를 풍미했던 이른바 카프(KAPF)가 1935년 해체하면서 일제의 식민지정책 속으로 함입되어 해방이 될 때까지 간혀 있다가 해방과 더불어 그야말로 '해방'되었으며, 해방으로 촉만된 문학계는 마침내 그들의 운동을 일제의 압박과 설움에서 벗어나 펼치려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단정이 수립되고 남한과 북한에 다른정부가 수립되자 각기 자신들의 운동성에 맞는 정부를 택하였고 그 영향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문학계와 비교하여 건축계를 본다면 카프가 풍미하던 1920-30년대는 건축은 아직 우리건축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불과 몇 명만이 기능적인 건축인으로 막 출발하던 때로 문학에서 처럼 의식을 형성하지 못했다. 다만 李箱(본명 金海卿)¹³⁾처럼 건축을 전공한 자가 자신의 의식을 건축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문학으로 전향하여 의사표출을 하려했던 사례들이 있는 정도로 사료된다.

문학계와 건축계의 직접적인 교류나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학계가 일찍이 이념형성과 조직구성을 시작하여 문화예술계 전반에 영향을 준만큼 건축계의 이념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은 주었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당

10. 신형기. 해방직후문학운동론. 도서출판 화다. 1988.
 11. 여기에는 박종화, 김광섭, 이현구 등이 참여했다.
 12. 여기에는 김동리, 조연현, 조지훈, 박종원, 서정주 등이 참여하였다.

13. 김정동. 건축가 金海卿(1910 - 1937)에 관한 소고. 건축가. 1982.11-12., 25쪽.

시만 해도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많아 간접적인 영향은 있었으리라 판단되는 것이다.¹⁴⁾

2). 미술계.¹⁵⁾

미술계는 일제하에서의 활동의 연장선에서 해방직후의 상황을 고찰할 수 있다. 1920년대 민족주의적 사고로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이하 조선예맹)]을 결성하고 미술운동을 전개하였으나 30년대 일제의 강압으로 중단되어 소멸하였다. 그러나 미술가들은 단체와 같은 조직적으로는 활동을 중단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소극적이거나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적인 활동을 계속한 이들은 해방이 되자 그들이 속한 단체에서 지도적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해방 직후 1945년 8월 18일 [조선미술건설본부(이하 미건)]가 결성된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 친일미술인을 제외하기도 하고 비교적 중도적이었으나 연합군 환영행사의 선전대에 참여하는 등 우익적 활동을 하였다. 후에 나타나는 친정부적 단체인 [대한미술협회](1948. 8)의 뿌리가 된다.

[미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단의 미술인들이 1945년 9월 15일 [조선프로레타리아미술동맹(이하 프로미맹)]¹⁶⁾을 조직하고 일제하에서의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이하 프로예맹)]을 계승하고 민족미술전통을 잇는 단체로 출발하였다. 이 단체는 단정 수립시 해소되는 [조선미술동맹]의 뿌리가 된다.

[미건]은 점차 해소되면서 1945년 11월 초 [조선미술가협회(이하 미협)]로 재결성된다.

14. 종로에 있는 '장안빌딩'에는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모이는 장소였으며 이 빌딩에는 배기형, 김희춘, 정인국, 김창집, 함성권, 엄덕문 등의 합동사무소가 있었고, 여기서 한국후기 근대건축의 메카역할을 했다고 김정동은 말하고 있다. 김정동. 한국의 현대건축1876-1990. 한국현대건축총람1.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기문당. 1994. 75쪽.

15. 최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 도서출판 들베개. 1991.

16. 이들이 채택한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미술 건설을 기함.
 1. 우리년 일제 반동적 미술을 배격함.
 1. 우리는 국제 프롤레타리아 미술운동의 축진을 기함.

[프로미맹]은 1946년 2월 23일 [조선미술가동맹(이하 미술가동맹)]으로 새로이 결성하는 한편 [미협]에서 탈퇴하여 [독립미술협회](1946. 1)를 조직하였던 작가들을 흡수하였다. 이들은 '프롤레타리아 미술의 건설'을 '민족미술의 건설'로 대체하고 강령도 새롭게 결정하였다¹⁷⁾.

한편 [미술가동맹]이 결성된지 며칠후인 1946년 2월 28일에 [미건]으로 부터 32명의 회원이 대거 탈퇴하여 [조선조형예술동맹(이하 조형동맹)]¹⁸⁾을 결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건축가들¹⁹⁾도 참여하였다²⁰⁾.

[조선미술동맹(이하 미술동맹)]은 [미술가동맹]과 [조형동맹]이 통합하여 1946년 11월 10일 결성되었다. 이들은 단정수립과 함께 해소되었다.

한편 [조선건축]지에 문화단체소개²¹⁾란에 난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으며 조직에

17. 이들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 잔재 청소.
 2. 국수주의 퇴폐예술사조의 배격.
 3. 민족미술의 신건설.
 4. 국제미술과의 제휴.
 5. 미술의 인민적 계몽과 후진의 적극적 육성.
 18. 이들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강령 : 우리들은 신세대 미술의 건설에 기함
 1. 미술상의 제국주의적, 봉건적 잔재를 숙청하고 건설한 신미술을 수립함.
 1. 조선의 자주독립 민주주의 국가의 완성에 협조하고 보조를 맞추어 조선미술의 부흥과 아울러 그의 세계사적 단계의 양양에 힘씀
 1. 미술의 계몽운동과 아울러 일반대중생활에 미술을 침투시킴에 노력함.
 1. 미술단체의 통합을 기함.
 19. 여기에 참여한 건축가들로는 건축부위원으로 오영섭, 강명규이 있고 회원으로는 조남수, 박학재, 유홍상, 강명규, 조병섭, 성락천, 손중모, 안일수 등이 있었다. 강명규는 이 동맹의 기관지 [조형예술] 장간호에 '건축의 예술성과 기능'이란 글을 실었다. 김정동. 한국현대건축총람1. 한국의 현대건축1/1876-1990. 제1부 한국현대건축1/1876-1955. 한국건축가협회. 85쪽 및 안창모. 일그러진 한국 현대건축의 단편들-한국현대건축50년. 제원미술총서3. 도서출판 제원. 1996. 19쪽.
 20. 여기에 참여한 작가들은 정종녀, 최재덕, 이쾌미, 김만형, 김기창, 김정수, 조규봉, 및 공예가와 건축가들로 주축을 이루었다.
 21. 조선건축기술협회 [조선건축] 제1권 제2집 1947. 6. 20 33쪽

도 건축인들이 참여하여 [조형동맹]에서 부터 건축인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미술동맹]에 참여하고 있는 건축가는 중앙집행위원이자 건축부 위원 오영섭, 서울시지부 집행위원이자 건축부 위원 안일수가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해서 이들 외에도 부서를 구성하는 건축인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미술가동맹과 조선조형예술동맹이 쌍방의 발전적 합동으로 조선미술동맹이 조직된 것이다. 장차 조선의 인민적 미술창조의 실천활동을 기본 목표로 하여 회화, 조각, 건축 등 모든 미술분야에 巨(거)하여 거의 대부분의 미술가들이 결집되었으며 인민미술의 대중보급계몽을 위하여 수차에 걸친 미술작품전을 개최하는 등 실로 다난한 활동을 하여 왔다. 우리 건축분야로 보아도 그 지향하는 바가 주시되는 바이며 동맹에서는 건축미술의 인민화를 부르짖는 건축가의 적극적 협력을 요망하고 있다 한다.”²²⁾

[조선건축]지의 창간호에는 [조선미술동맹] 위원장 윤희순이 축사를 게재하여 [조선건축]의 창간을 축하하였다.²³⁾

22. 이 동맹의 강령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 건설에 邁進
2. 민족미술의 신건설
3. 제국주의 잔재의 청소급 본건잔재의 숙정
4. 국수주의와 퇴폐예술사상의 배격
5. 국제미술과의 제휴
6. 미술의 인민적 계몽과 후진의 적극적 육성

조직 및 간부

중앙위원	위원장	윤희순
	부위원장	이인성 오지호
	중앙집행위원	오영섭의 28인
	서기장	박문원
	건축부 위원	오영섭
서울시지부	위원장	김진섭
	부위원장	박영선
	집행위원	안일수 외25인
	서기장	이춘남
	건축부위원	안일수

중앙 서울시지부 각자 건축부외에 회화(동양화, 서양화), 조각, 공예, 아동미술, 무대미술, 선전미술, 미술교육, 미술평론 등 각부가 있음.

23. 조선건축기술단. [조선건축]. 제1집. 제1권. 1947.3. 3쪽.

이와같은 미술계의 이합집산은 해방후 우리 문화예술계의 노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건축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이 전개되었다.

뿐만아니라 미술계와 건축계는 가장 인접한 문화예술 장르로 상호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며 근본적으로 이념적 활동성이 강한 미술계는 건축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조형동맹] 등에 건축부가 조직되어 활동하였고 이어서 [미술동맹]에도 건축인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상호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건축계의 활동.

3-1. 일제하 건축계의 활동.

일제말 한국의 건축계는 경성고공 등을 졸업한 건축가, 일본 등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유학과 등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총독부토목부건축과 등 중앙 및 지방관서에 진출하거나 교육계나 군속, 조선주택영단에 진출하였고, 일부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자영하기도 하고 상당수는 토건회사를 운영하거나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해방직후 사상적 이념적 혼란을 거듭할 상황을 예비하는 어떤 징후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해방직후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축가들 중 오영섭²⁴⁾, 성락천²⁵⁾, 손형순, 전창욱

24. 吳英燮은 金漢涉과 함께 1941년 日本大를 졸업하였다. 그는 꽤 진보적 사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대학교수 도리시모(折下)에게서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대를 졸업한 건축가로는 그 밖에도 김태식(1940), 성락천(1942), 홍사천(1943)이 있다. 오영섭은 조선건축기술단 창간호의 주소에 종로5정목 335로 기록되어 있으며, 광고란에는 오공무소(같은 주소, 사장 오병섭) 광고에 오영섭건축설계사무소가 소개되어 있다. 이 광고는 48년 9월 통권 제7호에도 게재되어 있어서 단정수립후에도 남한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거나 '안창모. 알 책. 25쪽.'의 글에 의하면 1950년에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하에서는 박길룡사무소에 근무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영섭은 1947년 12월 [조선건축] 통권4호에 [서울만물건현상설계당선안]중에 3등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게재되었다.

25. 성락천도 일본대를 오영섭과 비슷한 시기인 1942년에 졸업했다. 그는 41년에서 45년 사이에 조선주택영단에서 근무하였고, 1947년 12월 [조선건축] 통권4호에 [서울만물

등의 경우에도 아직 특별한 기록이나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전기한 바와 같이 이상(김해경)과 같은 사람은 건축을 전공하여 조선총독부 토목과에 근무하는 등의 건축활동을 하다가 문학계로 전향하여 자신의 의식을 표출하려 노력한 경우는 있다.²⁶⁾

3-2. 해방직후의 활동.

8.15해방이후 이남에서는 서울을 활동 무대로 하는 조선 건축 기술단(朝鮮 建築 技術團)이 1945년 9월 1일 창립되었으며 이 단체가 다시 단칙을 개정하면서 1947년 4월 23일 조선건축기술협회(朝鮮建築技術協會; 이하 조건협)로 발족하게 되었다. 한편 이북에서는 해방 직후인 8월 25일 건축협회(建築協會)가 결성되었다가 1946년 5월 10일 기타 건축단체를 흡수하여 북조선건축동맹(北朝鮮建築同盟)이 결성되었으며 이것이 동년 10월의 북조선과학기술인 전체대회를 계기로 이에 흡수, 북조선공업기술총연맹건축위원회(北朝鮮工業技術總聯盟建築委員會)로 발족하게 되었다²⁷⁾. 그밖에 조선건축사협회가 1945년 12월 창립되었고, 1946년 3월 21일 전남건축문화협회가 창립되었다. 해방공간에서

위와같은 단체들의 활동과 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朝鮮建築技術團(朝鮮建築技術協會) 28)

이 단체가 1947년 3월 20일 발간한 [朝鮮建築]지에 의하면 1947년 현재 단장에 金世演, 부 단장에 金允基, 朴仁俊 등의 회장단을 중심으로 단원 186명이 단원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상무이사에 유상하, 총무부 이사에 이원식, 강운, 김동수, 연구부 이사에 김순하, 김재철, 김희춘, 업무부 이사에 장연채, 이천승, 신무성씨가 있었으며, 평의원으로는 손형순씨외 14명이 있었다. 그밖에 찬조회원부에는 大昌工營株式會社 등 13개 회사가 있었다.

단칙에는 제1조에 그 목적이 [건축에 관한 각종연구조사, 연락내지 지도를 행하여 기계(既界)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건축국책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제1장 총칙 5조에는 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고 하고 있다.²⁹⁾

1. 건축에 관한 학술기예의 연구 내지 조사.
2. 건축기술자의 등록배치 내지 지도.
3. 건축교육의 진흥 내지 노무자의 기술향상.
4. 건축 각 부문에 연락협력 내지 건축과 사회 각부문의 연락협력.

전현상설계당선안]중에 이회태와 함께 3등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게재되었다. 이들은 신흥건축사무소를 경영(공동?)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단정 수립후의 행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안창모. 앞 책. 43쪽'에 의하면 60년대에 카톨릭단체에서 주관하는 해외 영농이민을 떠났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남미 어디에선가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말도 있다).

26.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의 생성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982.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교육의 기점에 관한 연구. 건축 1983.
 김정동. 일본을 걷는다. 한양출판. 1997. 263-284쪽.
 최순애. 박길룡의 생애와 건축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 1981.
 김옥성. 1945년부터 1955년까지 한국건축계 형성기 성격에 관한 연구. 명지대석론. 1990.
 줄고. 일제의 주거유산과 미군정기 주택사정 고찰(1). 대한건축학회. 1987. 10.
 줄고. 한국근대화과정의 건축제도와 장인활동에 관한 연구. 홍익대박론. 1989.
 27.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30년 연혁]. 건축. 제19권 65호. 1975. 8. p. 45. 정기철. 앞책. 재인용.

28. [조선건축]. 제1권 제1집. 부록. pp. 9-11.

29. [조선건축] 창간호인 제1집 제1호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朝鮮建築	
(建築판프렛, 第 1 輯)	
刊行辭	金世連(1)
祝辭	(2)
論說 朝鮮建築界의 展望	金允基(6)
現段階 建築家의 進路	李天承(8)
講演	
朝鮮의 建築家여! 創造者가 되라 사바키(10)	
建築家와 建築主와의 關係 라크로스(12)	
講座 朝鮮家屋 一般構造(基礎篇) 張起仁(15)	
Timoshenko의 좌굴이론 宋민구(19)	
文獻草錄 高句麗의住居制 (26)	
百濟의住居制 (13)	
國民住宅懸賞設計圖案概評 劉相(27)	
國民住宅懸賞設計當選圖案 (30)	
建築述語決定報告(構造施工篇) (33)	

부록

5. 건축국책에 관한 조사연구 내지 기 실시에 협력.
6. 건축에 관한 사회인식의 개발과 보급.
7. 기타 본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기사중 [건축술어제정보고]는 통권제9호까지 연재되었으며, [조선가옥일반구조]는 제4호까지, Timoshenko의 좌굴이론은 통권2호까지, [문헌초록]은 지속적으로 연재되었다.

제2호를 보면, [현대건축과 장식(오영섭)], [과학의 발달과 건축구조의 진보(박영준)], [건축경제사의 일고찰(성락천)], [신건축의 이념(이희태)], [건축사개론(이홍구)], [조선목재에 대한 약간의 고찰(김종민)] 등이 실려 있다.

통권3호, 제1권 제3집은 8.15기념호로 표지에 [조선완전자주독립만세]란 구호가 있으며, 제2호부터는 [조선건축기술협회]란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건축가의 사명(김세연)], [건축사를 논함(김대식)], [조선건축사론(1)(이한철)], [건축경제사의 일고찰(2)(성락천)], [건축경영의 사회화(1)(말턴와그너)], [건축사개론(2)(이홍구)] 등이 실려 있다.

제2권 제1집(통권 4권: 1947. 12. 20발행)에는 [서울만물전현상설계 당선도안], 본문으로는 [예술의 발생(전창옥)], [특수구조잡기(송민구)], [건축경영의 사회화(2)(김종민)], [건축경제사의 일고찰(3)(성락천)], [철근콘크리트 단형단면산정표(1)(김면식³⁰⁾], [조선정원사(오영섭)] 등이 실려 있으며 [고 박길용선생을 추억함(유상하)]와 [공사개요]로 [조선민주택행정처주택신축공사, 성북경찰서 청사 신축공사개요, 동도극장신축공사건축개요]가 실려 있다.

창간 1주년 기념호인 제2권 제2집(통권 제5호: 1948. 3. 20.발행)에는 기념사, 축사가 권두에 실리고, 본문으로는 [UN본부 평면계획], [폐치카를 논함(민장식)], [민가연구의 필요성(이희태)], [Renaissance이후(1)(염창현)], [벽돌강도에 대하여(유식호)] 등이 실려 있다.

제2권 제3집(통권6호)에는 권두언으로 [건축기술자여! 자주건설의 용사가 되라!(김세연)]이

있고, 본문으로 [주택현황과 기대책(손형순)], [주택에 대한 기술적 고찰(유상하)], [서울의 주택난과 주택지 선정(1)(박토구)], [주택과 난방(민장식)], [주택과 사회(청와)], [조선농촌주택건설을 위하여(조명호)], [미국의 주택사정] 등이 실려 있다.

제2권 제4집(통권7호 1948. 9. 20발행)에는 권두언으로 [민족정기를 앙양하라(유상하)]가 있고, 본문으로는 [조선건축공업생산의 자주성(백봉)], [원용력용융콘크리트에 관하여(김재철)], [서울의 주택난(2)(박토구)], [온돌과 보건(심상환)], [르네상스(2)(염창현)], [조선건축사연구 스크랩(1)(홍순오)], [여성주택교육문제(이희태)], [패전 일본의 건축사정]등이 실려 있다. 공사개요로는 [중로국민학교 신축공사], [중로구 청사 신축공사] 등이 있다.

3-4. 조선건축사협회³¹⁾

[조선건축]지에 나타난 당시의 문화단체의 소개를 통해 조선건축사협회의 면모는 다음과 같다. [8.15해방이후 혼돈기에 재경 유지인사들이 총망라하여 1945년 12월에 창립된 것으로 동협회사무실을 중로구 중학동 18의 5에 두고 창자 탄생될 신국가의 명실상부한 건축사가 되기를 지향함을 그 목표로 하여 현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강력한 간부 용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문	김세연, 정덕현
회장	김대식
부회장	장기인
상임위원	신태산

1946년 7월 최초로 조선건축사 자격심사위원회(위원 : 김세연, 김윤기, 이균상, 김순하, 유상하, 신무성, 김대식)를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며 금년도 제2차 건축사 자격심사로 불원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래 6월 말경에 활동하기로 되었다하니 그 결과가 크게 기대되는 바이며 앞으로 소규유자격자에 대해서도 수시로 심사할 예정이라 한다.]³²⁾

30. 김면식은 1941년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하였고 미군정청건축서에 근무하였고, 1950년에 월북하였다.

31. [조선건축]. 제1권 제1집. 부록. pp. 6-8.

32. 이 단체는 후(1965)에 대한건축사협회의 전신이 되었

3-5. 전남건축문화협회³³⁾

전남건축문화협회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건축문화단체의 유일한 지방조직체로서 전남도내 유위한 건축기술자 70명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후진한 조선건축문화의 지방보급내지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1946년 초(3월 21일)에 창립이후 불과 1년여 사이에 기관잡지 출판, 국민주택현상모집, 농촌주택개발연구, 민가실측답사 등 실로 다대한 실천활동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 서울중앙의 본 협회와 유기적 연락이 기대되는 바이다.

그 진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회장	박영만
부회장	김재구, 박해룡
총무부장	김한섭
기술부장	정육진
편집부장	김성주

3-6. 북조선공업기술총연맹건축위원회 (구 북조선건축동맹)³⁴⁾

북조선공업기술총연맹건축위원회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해방직후 1945년 8월 25일 진보적 건축가 13인의 발기로 건축협회가 결성되어 초창기의 기본 노선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9월 23일 협회를 동맹으로 개칭하고 평양의 건우회³⁵⁾ 기타 각도에 결성된 건축단체³⁶⁾를 전부 조직하여 1946년 5월 10일에 통일전선체로 북조선건축동맹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당시 맹원수는 약 200명이었다. 이래로 토지개혁실시, 노동법령의 발표 등 점차로 민주주의의 기초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동맹도 민주주의의 사회단체로서 민주과업실천과 건축문제해결, 건축기술자의 정치적 기술적 향상,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러나 이

다.

33. [조선건축]. 앞책.

34. [조선건축]. 앞책.

35.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기록이나 자료는 없다.

36. 이들 단체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더욱이 이것들이 북한지역에만 존재한 것들인지, 남한지역에도 있었는지, 혹은 실제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반면 주체적 역량의 미약, 혁명적 이론 박약에 기인한 비조직성, 계획성 부족, 사무적 기술부족 등의 협로를 걸어온 사실이다. 1946년 10월 북조선과학기술인 전체대회를 계기로 건설기술자와 일반 공업기술자와의 튼튼한 조직적 제휴 내지 동일한 과업실천 등 통일노선을 조직함을 필연적 임무로 규정하여 공업기술연맹 건축위원회로 개편함을 기안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2월 20일 건축동맹중앙확대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결의하여 일전문위원회로서 당면 옥상명령인 산업부흥에 이바지하게 된 것이다. 건축위원회의 결정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기술자들을 정치적 사상적으로 훈련할 것이며 건국사상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건축업계에서 시공분야를 담당한다는 직책관념에서 벗어난 사리사욕만 꾀하는 모리업자들의 숙정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2. 조선의 암담한 건축 현실우에서 미구에 당도할 건축문제의 원할 해결을 기하여 건축기술자의 역량집결 체제를 확립하고 실태조사와 해결 및 기술문제 연구계획에 주력할 것이다.
3. 건축기술 수준향상과 기술자 양성에 진력하여 현재 학교에서의 건축과목의 수업충실은 물론 기술자 단기 양성소 설치에 주력할 것이다.
4. 건축생산의 정체와 혼란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 통일조직을 추진시키며 현장 강습소 등의 설치로서 시공기능자의 질적 양적 양성을 병행시킬 것이다.
5. 건축문화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잡지를 발간하며 외국문헌번역 및 저술사업에 주력할 것이다.
6. 일반 대중의 건축조직을 재고하기 위하여 강력한 선전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7. 민족문화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시대 우리나라, 우리 인민에 맞는 건축양식 및 구조를 설정하며 새로운 건축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4. [조선건축]지에 나타난 건축계의 성격.

해방후 미군정 점령과 대한민국정부 수립과정에 나타난 한국건축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제약된 당시 기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아직도 자료들이 사장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앞으로 좀더 좋은 내용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조선건축]지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코자한다.

[조선건축]지는 1947년 3월 20일 건축 팸플릿 1호로 출간한 이래 9호까지 발간되었다. 필자가 정리한 내용은 크게 건축사, 사회경제, 주

거문제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역사, 사회경제, 주거문제는 한국건축 발전과정의 인식을 위해서 고무해 주는 획기적인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고 본 연구의 핵심인 해방공간의 건축계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4-1. 건축사에 대한 관점.

건축사에 대한 문제를 다룬 시기는 대개 이 기관지가 초기에 간행된 것들로 호수를 거듭할수록 역사문제에 대한 구체적 기사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통권2호의 경우에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희태의 [신건축의 이념(2권 32쪽 ; 이하 2-32P)], 이흥구의 [건축사개론(2-35P)], 오영섭의 [현대건축과 장식(2-23P)] 등이 있다. 그밖에 1호부터 계속 연재된 백남운의 저서에서 발췌한 [문헌초록], 이한철의 [조선건축개론(3-7P)], 전창욱의 [예술의 발생(3-7P)], 염창현의 [르네상스 이후(7-17P)]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문헌초록]의 경우 당시의 척박한 역사 인식 속에서 한국건축의 인식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백남운의 저서 [조선사회경제사]³⁷⁾, [조선봉건사회경제사]에서 발췌한 것으로 이들 저서에서 백남운은 [역사과학에 있어서의 유일한 특수성은 사회의 역사적 발전단계의 특수성이다..... (따라서)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과정은 설사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형태의 외형적 특성 등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외관적인 소위 특수성은 다른 민족의 역사적 발전의 법칙과 구별되어야 할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세계사적인 일원초적인 역사법칙에 준거하여 다른 제민족과 거의 동계적인 발전과정을 거쳐온 것이다]³⁸⁾라고 씀으로써 조선의 역사발전도 세계사적인 일

원적인 역사법칙에 준거하여 동계적인 발전과정을 거쳐온 것으로 보고 있다.

1). 문헌초록(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발췌)

[조선건축]지의 제1호에는 [고구려 주거제]와 [백제의 주거제]가 발췌되었다.

[고구려의 주거제]에서 백남운은 “절식을 한 민속으로써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생산력과 관련하여서 비판적으로 취급하여야함과 동시에 이 주거제에 관하여서도 문자에 구속되지 말고 당시의 생산력 내지 사회적 관계와 연관시키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백남운은 건축의 형상을 [당시의 생산력 내지 사회적 관계]로 규명하려 하였다.

[백제의 주거제]에서는 “주거제라 하는 것은 물론 건축기술과 직접관련된 일이지만 생산력으로써의 기술자재를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생산관계의 일면으로써의 거주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의복제의 경우와 한가지로 사회적 신분관계, 빈부의 현격 등에 의하여 자연 분할적으로 규정되었을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분묘형의 초옥중에 일가족이 남녀의 구별없이 공주하였다”는 것을 서술하고 “2,3세기경의 일반민민의 주거상태였음”을 부연하고 있다. 또한 “그러나 당시의 관가 즉 관부는 성곽으로 둘러 당당한 고대 루각이었을 것이고 또 노예소유자계급은 생산조직의 계급적 발전과 소유노예의 증가 등에 따라 장려한 주택을 구축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컨대 당시의 주택양식은 빈부의 정도에 조용하여 현저한 차이가 생기었던 것이고 금일의 부호의 저택에서 볼 수 있는 석가산 수각 등의 축조는 당시 백제 귀족군의 주택생활에서 유래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건축] 2호에 연재된 [신라주거제]에서 백남운은 신라의 주거 역시 계급적 현격이 증대되었다고 기록하고, [신라예술과 노예와의 관계]라는 제목하에 “신라예술의 직접생산자는 ... 노동민중이었던 노예군이야말로 신라문화의 직접개척자이고 예술품의 공작자였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37.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는 1933년 발행된 것으로 37년까지 무려 33판을 거듭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사기본법칙”을 도입하였다. 이영훈. [한국자본주의 맹아에 대하여]. 한길역사강좌5. 한길사. p. 49.

38. 우리경제연구회. [한국민중경제연구사]. 형성사. p. 17. 백남운. 조선사회경제사. pp. 8-9. 재인용.

이후 계속되는 연재에서 백남운은 [고려시대의 토목노동]이란 제목하에 사회적 생산력의 대표자를 농민으로 돌렸고, [공역]과 공장 내지 상인], [토목영선에 관한 관계], 그리고 [도량형제] 등을 기술하여 우리의 건축기술사에 중대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조선시대편에서는 [토목노동], [공장수공업] 등을 다루고 여기에 [현존건축물초]가 수록되어 있어 당시의 유구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해방과 더불어 [조선건축]이 한국건축사 확립의 토대를 마련키 위해 이 같은 연재를 사회경제사로 부터 섭취해 연재한 사실은 당시의 건축계가 얼마나 척박한 상황에 있었던가를 실감케 하며 또한 한국건축사의 기본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조선건축]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사료된다.

한편 [조선건축]지의 [문헌초록]을 통해서 해방공간의 건축인들의 역사와 그 역사적 연장선상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키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건축의 주체자로서의 대상설정과 그것의 결과물로서 건축물을 상기와 같은 관점에서 파악하려했음에서 명백해진다. 백남운의 이 글에서 건축의 범주를 넘어서 조선사회의 독자적인 한 발전단계로서 노예제적 수성의 준부를 문제로 삼을 때, 반드시 조선사회의 발전양식의 기본적 틀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노예제도는 건축의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았으며 전분야에 걸쳐 계급대립의 반점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공동체의 붕괴, 계급사회의 발생 및 발전과정에 있어 하나의 생산양식으로 까지 발전하였으며, 그것으로 깊은 사회적 작용을 하여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언제나 부차적인 역할만 수행해 왔음이 백남운의 글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선의 사회적 발전과정에 있어 노예제적 구성을 찾아내는 것만이 반드시 역사과학의 진보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조선의 사회적 발전과정의 정체성을 근원적으로 표시하

고 있는 노예제적 관계의 미발전을 충분히 평가함³⁹⁾으로서 건축사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이흥구의 [건축사개론]

이흥구⁴⁰⁾의 [건축사개론]은 제1권 제2집과 제3집에 연재게재한 강좌로서 건축사를 역사발전법칙의 문제로 파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건축사에 있어 역사단계는 일반사회경제사와 병행하여 결정”되고, “일정한 시대에 있어서는 일정한 생산방식이 지배적이 되고 따라서 그것이 그시대의 사회체제를 결정하는 지배적 요소가 되므로 그 시대의 지배적 생산방법 생산관계가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건축사에 있어 중요한 [모멘트]를 이 흥구는 “건축생산의 주요대상, 즉 주체적 건축의 역사적 발전의 고찰이며 전 사회기구로 부터 요구되어지는 주체적 건축의 부가할 역할의 역사적 고찰인 것이다. 따라서 건축사는 각 시대의 지배적 요소로서의 주체적 건축과 다른 일반건축과의 연관성에서 추상하고 고찰하는데 진실한 의의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흥구는 고대 그리스, 로마건축양식을 “그 시대의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서 얻은 잉여노동력을 지배계급의 자신의 특권을 위하여 소비하는 기념품으로 표현됐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예술사적으로도 주체적 건축은 기술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최선최미를 다할 수 있는 지배계급의 건축이었기 때문에 계급적 표현과 억압수단속에서 건축의 역할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주체적 건축은 지배계급의 권력표현으로서 사회체제의 변혁발전에 수반하여 발전하여 온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의 상징으로서의 빌딩, 백화점, 대공장 등은 자본의 감리 기구로서의 국제기구의 상징인 관청, 의사당

39. 우리경제연구회, 앞책, pp. 29-30.

40. 이흥구는 1941년 김면식과 함께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조선건축기술협회의 평의원이었으며, 기관지 편집위원이었다. 그는 삼기공업회사에 근무했으나 전쟁전 월북했다. 그러나 그가 서울대 건축과에 교수로 근무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안창모, 앞책, 42쪽 및 44쪽.

등 등의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역할속에 주체적 건축은 분화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 입각해서 이 홍구는 원시사회의 건축, 고대문명사회의 건축, 중세봉건사회의 건축, 산업혁명후의 건축, 제1차 세계대전후의 건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건축의 역사적 고찰상 중요한 [모멘트]는 건축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이 원시공산사회로부터 현금에 이르기까지 여하히 발전되어 왔는가를 사회일반의 역사적 발전속에서 유물변증법적 통일하에 파악하는데 있다”고 기술하고 그에 따라서 “건축사라고 관점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반동적 제반 환영을 일소하고 모든 것을 구체적 발전과정으로서 인식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홍구는 이 글의 결론에서

“조선의 건축가여! 우리는 일철의 [아카데미즘]에서 탈각하고 건축을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고구함으로서 원칙적인 기술이념을 확립하여 민주주의적 인민건축창조에 노력하자! 이리하여 신생조선건축의 참된 조직자 건설자가 되자!”고 역설함으로써 건축의 정치, 사회성을 일깨우고 관념적, 학술적 맹안에서 벗어난 민생에 뿌리를 둔 건축행위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홍구의 건축사에 대한 글 역시 진술한 백남운의 사회경제사를 발췌한 [문헌초록]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한국건축사 구축을 위한 중대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4-2. 사회경제에 대한 관점.

[조선건축]에서 사회와 경제관계를 다룬 논설은 대개 건축의 사회적 관계속에서 경제관계를 고찰한 것들로 성락천의 [건축경제사 일고찰(2-29P, 3-19P, 4-17P)], 말탄 와그나(김종민역)의 [건축경영의 사회화(3-23P, 4-9P)] 등이 있다.

1). 성락천의 [건축경제사의 일고찰]

성락천은 [건축경제사의 일고찰]⁴¹⁾에서 건축

의 사회성에 대하여 “이는 일정한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 구조에서 나오는 건축이 가지는 사회적 욕구 내지 역할을 말함”이라 하고 건축의 본질을 규명키 위하여 먼저 “그 사회의 규모전체를 규정하는 근본원인을 규명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그럼으로써 건축이 가지는 사회성을 정당한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어서 사회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리적 환경의 영향을 한 예로 들고 이것은 사회적 발전에 도움을 주나 결정적인 요인은 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변화는 지리적 환경의 발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급속히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사회적 구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생산관계와 생산력”이며, 생산관계에 대하여서는 “원시사회에서는 다만 공동작업과정에 있어서 인간을 통일하는 기술적인 생산관계만 존재하였지만 생산제력이 증대함에 따라 생산수단의 사유의 발달은 노동력만을 소유하는 자와 그 노동력을 소유하는 물질적 제조건, 즉 생산수단만 소유하는 자로써 분열하게 하였으며 그 관계는 생산과정에 있어서 그 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결합이 실현되는 특수한 성질과 방법이 그 시대의 사회적 구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이 결정적인 요인은 사회적 구조의 경제시대를 결정함이나 역사발전을 고찰함에 있어서 그 시대의 정치적 권력자의 영고성채만을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경제적 - 생산제력의 발전형식을 고찰할 까닭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경제구조 - 생산관계를 토대로 하여 전사회제도, 사회사상, 정치적 견해, 정치적 기관, 문화예술 등의 성격을 결정하며 또 점차 혹은 돌발적인 변화가 그것들의 발전변화를 유발시키는 것과 동시에 각 시대의 특징이 장구한 시기에 걸쳐서 한 끝에 결코 잠기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며 그 역사의 각시대는 내면적 연관성을 가지고 발달하는 사회의 생산발전에 따라 풍부

41. [조선건축]. 통권2호. p.20. , [조선건축]. 통권3호. p. 10. , [조선건축]. 통권4호. p. 17

하여지고 그 사회의 성쇠의 역사를 그 자신(건축)의 역사속에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건축]은 일정한 시대의 [문화의 척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 성락천은 [원시사회], [고대사회], [봉건사회]로 나누어 자세히 기술하고 결론으로 [건축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영향은 중대한 것이며 건축의 발전성쇠가 사회의 경제구조에 의해 딸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발전을 신비적 혹은 관념적으로 관찰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과학적으로 관찰함이 가장 정확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 바이다]라고 끝내고 있다.

이 밖에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기술된 내용은 [건축경영의 사회화]로 말틴 와그너 저, 김종민⁴²⁾ 역이 그것이다. 이 글은 [서론], [전자본가적 건축조영], [현대적 건축조영]으로 크게 나누어 서술하고 [전자본가적 건축조영]은 3단계로, [현대적 건축조영]은 건축가, 건축노동자, 기업가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4-3. 주거문제에 대한 관점.

[조선건축]지에 나타난 주거문제에 대한 내용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거문제를 중심으로한 연구와 고찰의 글들은 다음과 같다. [국민주택 현상공모 심사를 마치고(유상하 ; 1-27P)], [국민주택현상공모도안(1-28P)], [건국과 주의 비중(손형순 ; 3-32P)], [주택문제잡감(이흥구 ; 4-24P)], [민가연구의 필요성(이희태 ; 5-16P)], [주택현황과 기대책(손형순 ; 6-4P)], [주에 대한 기술적 고찰(유상하 6-5P)], [서울의 주택난과 주택지 선정(박토구 ; 6-7P, 7-13P)], [주택과 난방(민장식 ; 6-12P)], [주택과 사회(청와 6-14P)], [농촌주택건설을 위하여(조명호 ; 6-16P)], [미국의 주택사정(6-20P)],

[온돌과 보진(심상황 ; 7-16P)], [여성의 주택교육문제(이희태 ; 7-21P)]

위와 같은 주거문제를 다룬 글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손형순의 [건국과 주의 비중].

우선 손형순의 [건국과 주의 비중]⁴³⁾은 국가의 구성요소를 住者라 규정하고 “국은 즉 주군의 연합체”이며 “주는 국가입장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발원소이며 대상물”이라 하고 “이 주를 떠나서는 국가성립을 긍정할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어서 당시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기부와 원조 등에 의하기 보다는 국가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 이흥구의 [주택문제잡감]

[주택문제잡감]⁴⁴⁾에서 이 흥구는 주택이란 인간생활의 환경이며 생활표현인 동시에 인간활동의 원천이 되는 곳이라 정의하고 따라서 생활문화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주택도 최선최고의 방향으로 부단히 진전변화할 것이며 주택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일 것인 즉 이러한 의의를 상실할 때에는 우리생활자체의 모순과 파탄을 초래하게 되며 인류사회의 발전과 향상이 두절되고 말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당시의 주택상황에 대하여 두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경제문제의 일환으로 양적인 주택난을 들고 있다. 즉 해외동포의 귀환으로 급격한 인구팽창, 반무산실직대중의 도시집중에 따른 주택수요의 속수무책 등으로 수도서울의 경우 전인구 과반수가 전세방에 기속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노변에서 방황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둘째 문화문제의 일환으로 당시 기준주택의 봉건성을 통박하며 조선사람의 다수가 소위 자택이라고 살고 있는 조선재래식주택은 기형이나마 다소 근대화한 우리의 생활양식과는 거리가 먼 만치 시대문화발전에 병진할 수 없는 봉건적인 역사적 전형 그대로 인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군

42. 조선건축기술협회의 사업부원이었으며 미군정청 건축서의 고문 조셉 사바키의 '조선의 건축가여 창조자가 되라' 등 건축서 직원이며 법률가인 폴 J. 라크로스의 강연 '건축가와 건축주의 관계'의 통역을 했다.

43. 조선건축]. 앞책. 제1권 제3집. p. 32.

44. [조선건축]. 앞책. 제2권 제1집. p. 24.

다나 일제의 대조선문화정책은 그 식민지적 필요성에서 조선의 봉건성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봉건문화의 근대문화에의 전환을 저지하였고 심지어 주택의 일본화를 강요하였기 때문에 조선주택은 생활용기로서의 어떠한 절충형 조차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같은 문제는 기만주의 내지 사회개량주의의 일맥으로 등장 취급되었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를 위한 시책은 장차 국책의 일환으로 채택되는 동시에 민주주의적 제반정책과 병진하는 기본원칙아래 강력하고 일원적인 조직과 실천이 있음으로서만 소기의 성과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그 긴급성에 비추어 질에 관한 것보다는 양에 더 치중해야 하려니와 이것을 응급과 항구대책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주택문제를 제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점을 주장한다.

“첫째, 양적 주택난 해결을 위한 주택의 응급적 다량생산은 급속한 국토계획과 연도별 계획하에 계속될 것.

둘째, 주택건설은 반드시 공익적 국가사업으로 민주경제건설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

셋째, 주택정책의 수립과 주택행정기구의 운영대리 기술이 참여하는 동시에 일방으로 기술연구기관을 급속설치할 것.

넷째, 주택의 봉건적 극복은 모든 생활개량혁신을 원동력으로 하여 달성될 수 있음으로 생활을 규정하는 정치경제문화의 급진적 향상을 도모할 것”

3). 손형순의 [주택현황과 그의 대책]

[주택현황과 그의 대책]⁴⁵⁾이란 제목의 손형순의 글은 당시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해 해방전부터 지속된 15만호, 국외로 부터 귀한 인구 부족호수 22만호, 자연증가 인구의 부족호수 약 7만호로 도합 44만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양적 해결을 위해 국가적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적절한 국가기구가 존치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봉건적, 비과학적 구습을 탈각하고 민주주의의 이념의 과학적 양식으로 질적 개혁을 의욕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자금과 자재의 효율적인 소비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를 절대적으로 주장하였다.

4). 박토구⁴⁶⁾의 [서울의 주택난과 주택지선정]

[서울의 주택난과 주택지선정]⁴⁷⁾은 박토구의 글로써 다음과 같은 목차가 그 내용이다.

1. 노숙하는 인민.
2. 도시생장의 법칙과 주택지선정.
3. 인구동태와 그 밀도로 본 서울 도시권의 한계.
4. 교통편으로 본 서울도시권의 한계.
5. 내부정비로 본 서울의 주택지선정.
6. 외부발전으로 본 서울의 주택지선정.
7. 위성도시 행주의 축성제창.

박토구의 논설에는 앵겔스의 1844년도의 영국제도시의 노동자 생활상태를 쓴 글을 인용하는가 하면 러시아 각도시에 대한 레닌의 글도 인용하고 있다. 그는 “도시경영에 참여하는 우리 기술자는 헛되이 공상적 유토피아를 그려서는 안된다. 조선민국은 지금 조국의 민주독립을 진취하는 마당에 서 있다. 의식주는 인류생활에 기본적인 것이다. 우리 민족이 주권을 잡지 못하면 조선인민은 노숙할 것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이미 3년이 넘었는데 노숙하는 인민이 늘어가는 사실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인민의 주택문제는 사회에 상정된지 이미 오래이며 또한 긴박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민족의 민주독립과 같이 우리의 주택문제를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그 준비를 위하여 이하 서울의 주택지를 논하는 바이다”

이어서 그는 [도시생장의 법칙과 주택지선정]에서 주택지선정은 먼저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고 도시는 그 성장법칙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시를 유기체적 생물로 보아 대도시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46. 박토구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명으로 보인다.

47. [조선건축]. 앞책. 제2권 제3집. pp. 7-11.

45. [조선건축]. 앞책. 제2권 제3집. p. 4.

첫째, 도시하부시설의 문제
둘째, 경제적 문제
셋째, 보건위생상의 문제
넷째, 안보상의 문제.

[인구동태와 그 밀도로 본 서울도시권의 한계]에서는 서울시 인구밀도를 제시하고 당시 이미 그 한계점에 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통면으로 본 서울도시의 한계]에서는 당시의 주요 시내교통수단으로 전차와 버스를 주력으로 보고 인구 100만 도시에 대한 서울의 교통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내부정비로 본 서울의 주택지 선정]에서는 1948년 7월 현재의 서울시 건축면적을 제시하고 1948년 4월 현재 각 구별 [거주가구면적과 건평과의 비], [1인당 주택면적], [1인당 주거지 면적]을 표로 제시하였으며 주거면적에 대한 과잉인구 숫자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공사시행중 8.15로 인하여 중지된 구획정리구역내의 주거지역에 잔존한 미건축지를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5). 청와(48)의 [주택과 사회]

[주택과 사회]⁴⁹⁾란 제목하의 청와(靑瓦)의 논설에서는 주거문제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주택의 사회성을 논했다. 즉, “자본주의의 침입이 초래하는 현사회의 커다란 모순의 하나로서 [주택문제]를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주택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본주의사회는 농촌에서 끊임없이 도회지로 유입하는 무산노동자들(빈농과 소작인들)을 기초로 하여 발달되어 왔다. 즉 자본주의 발달의 근원인 화폐와 상품이 농촌취락생활의 내부에 침투하면 할수록 그곳에서 생영하는 빈농들은 촌간민간의 연대적 협동관념의 파괴와, 관개의 자본주의적 영리사업인 수리조합으로 변화함에 따라 영세한 토지경작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도시의 자본주의산업 조직을 찾아 집중하여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회지

는 지방의 식민지라고 까지 할 수 있고 따라서 자본주의 산업기구하에서는 자본력의 편재를 초래하여 대다수 대중은 항상 식생활조차 위협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자기주거를 가질 자본력은 도저히 없이 그네들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움집]을 시내 혹은 천변에다 비합적으로 건설 (이것이 토막이 됨)하거나 타인의 자본력으로 건설한 가옥을 빌리는 [셋방]살이를 하거나 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인 동시에 주거살이라 할 수 있다. 이 [셋방]주거가 도시의 지배적인 주거상태로 되어 있고 많은 주민은 임차가인으로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거사용권을 동시적으로 빌리게 된다.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적 산업개발에만 힘쓰고 도회지로 모여든 무산대중의 주생활에는 일절 관심조차 두지 않을 정도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은 그 기구적 필연적 결과로써 사회폐단의 결정적인 빈민불량주거지구 등을 산출하게 되는데 그 격화는 이어서 노동력의 질적 유지에 대한 불안과 동요 내지 일반적인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어서 필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악]에 대하여 주택난의 문제를 양과 질의 문제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양에 대한 문제 있어서는 “도시에 집중된 무수의 빈민(무산노동자)들의 도회지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네들의 노동력을 파는 유일한 길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네들이 팔 수 있고, 또 판 노동력의 대상, 즉 약간의 임금은 그네들에게 의,식생활(최저)을 하는데 부족할 정도 일 뿐이니 주에 있어서는 멀리 도심에서 떨어진 빈민가 외에는 그네들을 맞이할 방한칸이 아니라 [헛칸]조차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이들의 피땀의 결과인 자본은 결국 자본가 혹은 특수 계급만의 이익을 도모하는 축적과정이 될 뿐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회적 모순으로 보았다.

질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질적주택난”이란 “경제적 사실로서는 거주자가 주거하는데 이 주거에 대한 지출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경제적

48. 청와도 특별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 가명으로 보인다.

49. [조선건축]. 앞책. 제2권 제3집. pp. 14-19.

주택난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치 않을지라도 자본주의 사회의 하층계급은 항상 이러한 주택난을 당하여 말할 수 없이 극악한 주거에 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양적 주택난의 제일의 원인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조직의 모순인 자본의 끊임없는 유입침투로 일어나는 호경기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지방무산자들의 도시집중의 주택난이다. 이는 상기의 질적 주택난과는 불과반의 관계에 있다.

필자 청와는 이러한 불량주택 내지 빈민가가 인류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채광], [밀도], [풍기]의 측면으로 설명하고 이어서 주거경제, 주거정책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주택문제의 존재가 인간사회의 분리할 수 없는 절실한 긴급사이나 [주]라는 문제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주택문제는 임금문제(경제문제)와 다름아닌데 즉 진의의 주거상태개량 및 해결을 도모하려며는 주거비용의 저하를 막는 것도 일요소인데 이에겐 무엇보다도 노동력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함이 선결문제이다. 다시말하면 주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근로계급의 생활난이 진실로 제거된다는 전제하의 실현, 즉 사회기구가 그들의 생활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도록 개혁됨으로써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 또 일면 이 문제는 건축가로서 고찰할 때 관념론적 주택문제 논의만으로는 안될 것은 물론 도시계획문제만으로도 안되고 강력한 국가경제 토대하에 주거의 근린지 단위산업시설을 주로 한 전면적 국토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사회기구 및 경제조직하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혁신하며 그러한 사회가 도래할 것을 기다려 마지않는다”고 쓰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해방직후 우리 건축계가 이념적, 사상적 혼란의 시기에 천착한 과정을 살펴보고 그와같은 것이 향후 한국건축근대화를 위해서 어떠한 성격을 지녔는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당시 우리 건축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의 전분야에서 이념적 갈등과 사상적

부유의 혼란속에 있었다. 문화예술계의 타장르에서는 일제하에서부터 상당한 예비적 상황들이 축적되었었으나 건축에서는 그와같은 예비적 상황들이 없이 타분야와 같은 시대적 흐름속에서 이념형성을 했다는 점이 타분야와 다른 점으로 사료된다. 해방직후 상황에서는 좌익계나 우익계가 거의 동시에 그들의 의사를 표출할 조직화를 도모했으며, 그 조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념을 표출했다. 특히 당시 [북조선건축동맹]이 친북적 정치이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활동중심이 북한이었던 점을 본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선건축기술단]은 상대적인 우익적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 중심적으로 고찰한 [조선건축기술단]의 ‘조선건축’지를 중심으로하여 볼 때, ‘조선건축’지에 참여한 많은 인사들이 대부분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며 단정 이후에도 남한에서 건축활동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보적인 건축인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건축역사, 건축과 사회, 주택문제 등의 분야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시각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좌우익적인 관점이 아니라 민족적인 관점의 글이 상당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좀더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서울에서 발족한 조선건축기술단(조선건축기술협회)내에 오영섭, 성락천, 손형순, 전창옥 등 활동이 왕성한 진보적 인사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이홍구, 김면식과 함께 단정수립을 전후해서, 혹은 6.25를 전후해서, 월북함으로써(성락천제외) 이들이 이념적으로 비교적 진보적이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들은 미군정청이 우익단체로 분류한 [조선건축기술단]내에서 진보적 글을 싣고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념과 주장을 표출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우익적, 혹은 중도적 입장을 견지해온 건축인들은 진보적 인사들의 활동을 같은 조직내에서 허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단정수립을 전후해서 이들의 진보적 인사들의 활동을 점차 사라지기는 했다. 한편 청와 같이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

는 인사들의 글은 본명을 밝힐수 없을 만큼 강도높은 비판적, 이념적 글을 게재하면서 이념을 표출하기에는 가명을 사용해야하는 한계가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당시 건축계의 성격은 국가적, 사회적, 정치적 성격에 밀접하게 좌우되었으며, 그에 의해 그 후 건축계가 성격지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문화예술계의 타장르도 같은 길을 걸었다.

이와같은 것들이 추후 우리 건축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는 더 많은 자료를 발굴하고, 통일 후 북한에서의 건축의 진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고찰하게 되면 더 깊은 연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신형기. 해방직후 문학운동론. 도서출판 화다. 1988.
- 2). 최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 도서출판 돌베개. 1991.
- 3). 이영미. 민족예술운동의 역사와 이론. 한길사. 1991.
- 4).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 - 지식인작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방전후사의 인식2.
- 5). 임헌영. [해방직후 지식인의 민주현실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2.
- 6). 부루스 커밍스. [한국의 해방과 미국의 정책], 분단전후사의 현대사. 일월서각.
- 7). 이종훈, [미군정경제의 역사적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1. 한길사. 1979.
- 8). 송건호, 박현채 외, [전후 세계체제의 변화와 한반도 - 한국현대사를 보는 시각], 해방40년의 재인식. 돌베개. 1985.
- 9). 이헌영, [8.15의 사회경제사적 인식], 한국자본주의론. 까치. 1984.
- 10). 박현채, [한국자본주의 전개과정], 해방40년의 재인식1. 돌베개. 1985.
- 11). 가브리엘 콜크, [국제정치학적 역학관계와 전후처리문제], 분단전후의 현대사. 일월서각.
- 12). 森田芳夫/정도영 옮김. [미군정의 남한진주와 군정개시], 한국사회연구5. 한길사. 1987. 5.
- 13). 송남현. [해방3년사1 1945-1948]. 까치. 1985.
- 14). 김광식. [8.15직후 한국사회와 미군정의 성격], 역사비평 제1집. 1987.
- 15). 박현채. [남북분단의 민족경제사적 위치],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1985.
- 16). 진덕규. [미군정의 정신사적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p. 47, p. 51.
- 17). 재무부. [재정금융회고]. 1958.
- 18). 한국의 산업경제10사. 한국산업은행. 단기 4288.
- 19). 주한경제협조처 편찬. [남한경제사정]. 1949. 백조사.
- 20). 우리경제연구회. [한국민중경제연구사]. 형성사.
- 21). [조선건축]. 제1권 제1집. 조선건축기술단. 1947. 3.
- 22). [조선건축]. 제1권 제2집. 조선건축기술협회. 1947. 6. 20.
- 23). [조선건축]. 제1권 제3집. 조선건축기술협회. 1947. 8. 30.
- 24). [조선건축]. 제2권 제1집. 조선건축기술협회. 1947. 12. 20.
- 25). [조선건축]. 제2권 제2집. 조선건축기술협회. 1948. 3.
- 26). [조선건축]. 제2권 제3집. 조선건축기술협회. 1948. 6.
- 27). [조선건축]. 제2권 제4집. 조선건축기술협회. 1948. 9.
- 28).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30년 연혁]. 건축. 제19권65호. 1975. 8.
- 29). 안창모. 한국현대건축 50년. 도서출판 재원. 1996.
- 30). 정기철. 1876년부터 1948년까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건축활동의 성격과 그

-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88.
- 31). 김정동. 일본을 걷는다. 한양출판. 1997.
 - 32). 김정동. 韓國近代建築의 새로운 位相. 1986.7.5. 61年度, 芝浦工業大學建築工學科主催 特別講座시리즈, 1986前期.
 - 33). 김정동. 건축가 金海傾(1910 - 1937)에 관한 소고. 건축가. 1982.11-12..
 - 34).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의 생성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석론. 1982.
 - 35).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교육의 기점에 관한 연구. 건축. 1983.,
 - 36). 한국건축가협회. 한국현대건축총람1. 한국의 현대건축1876-1990. 기문당. 1994.
 - 37). 최순애. 박길룡의 생애와 건축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 1981.
 - 38). 김옥성. 1945년부터 1955년까지 한국건축계 형성기 성격에 관한 연구. 명지대석론. 1990.
 - 39). 줄고. 일제의 주거유산과 미군정기 주택사정 고찰(1). 대한건축학회. 통권13호. 1987. 10.
 - 40). 줄고. 일제의 주거유산과 미군정기 주택사정 고찰(Ⅱ). 대한건축학회. 통권14호. 1987. 12.
 - 41). 줄고. 한국근대화과정의 건축제도와 장인 활동에 관한 연구. 홍익대박론. 1989.

A Study on the Charater and Operations in just after Liberation of the Korean Architects Circle.

- Focusing in the Magazine 'Chosun Gunchuk' -

Kim, Ran ky.

(Myong Ji Univ. Lecture)

ABSTRACT

When [Chosun gunchukdan (Korean Architects Group) has operated in just after Liberation, and analysis their magazine [Chosun gunchuk], they taken the middle the road position. But in spite of continuing the arcitetural operatuon in southern Korea after establishing government, they had the character of progressives in itself. Specially in term of architetural history, architecture and sociaty, problam of dwelling, they had progressives consideravely. And not point of left-right view, there had been the writings of the racial view consideravely. But as coming establishing government, there were disappeared the progressives gradually.